

전주시 첫 번째 '어울림정원' 탄생

호성동 '소통의 정원' 내 개소
도심 미세먼지 문제 해결 위한
'천만그루 정원도시' 만들기 성과

전주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에 나선 가운데 마을 주민이 스스로 만들고 가꾸는 첫 번째 어울림 정원이 탄생했다.

시는 지난 5일 전주시 호성동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소통의 정원'에서 제1호 어울림 정원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위원장, 사업에 참여한 (사)푸른전주운동본부(호성동)와 초록꿈공작소(동서학동), 노송천마을(노송동) 등 6개 마을 공동체(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조성한 정원을 시민이 주체가 돼 사후관리에 힘쓰고 주민들끼리 스스로 돌보아 줄 수 있는 어울림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5일 전주시 호성동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소통의 정원'에서 (사)푸른전주운동본부 관계자 등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울림 정원 개소식이 열렸다. <전주시 제공>

이와 관련 '소통의 정원'은 만 12-23세의 소년원 출원생과 보호관찰을 받는 위기 청소년이 생활하는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의 삭막한 공간에 나무와 꽃으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정원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사)푸른전주운동본부가 공모해 만들었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우리 마을 어울림 정원 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해 총 128개의 마을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시민 누구나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춰 스스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시민 정원사 양성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도심 곳곳 작은 마을 정원들이 생겨나면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각종 도시재생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주택가에서 100m 거리 양계장 시설 허용 놓고 남원시-주민간 '법정싸움' 등 갈등 깊어져

남원시 내척동에 들어선 양계장 시설을 놓고 주민과 남원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9일 남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해당 지역에 양계장이 새로 들어섰다.

이후 남원시는 같은 해 12월 해당 양계장 사용을 승인했다.

문제는 양계장이 민가에서 불과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양계장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먼지 발생 같은 피해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남원시는 주민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계장 운영을 허가했다.

이에 해당 지역주민 70여명이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행정당국이 주민들과 법정 싸움을 벌이는 불행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의 한 주민은 "주민이 거주하는 민가가 가까운 곳에 양계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행정당국이 어떻게 허가를 내줬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결정했다면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는데 법정 소송까지 가게 돼 피해가 막심하다"며 "지역 주민 대부분이 60-70대 노인인데 변호사 비용 마련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달 29일 남원시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며 양계장 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상황에 남원시는 주민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절차에 따라 허가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축사 등 양식화 특례 절차에 따라 허가한 사안이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전북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손잡고 중기 대출금리 최대 3.9% 감면 지원

전북도가 유망 중소기업에 최대 3.9%까지 대출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전기안전공사 사가 총 50억원을 예약하고 기업은행이 이를 맡아 협력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6일 전북혁신도시 내 한국전기안전공사 창조홀에서 전북지역 중소기업과 상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반성장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혁신도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북도 이전 공공기관으로써 선도적으로 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에 힘을 보태기 위함이다.

협약에 따라 '공사'는 올해부터 매년 10억원씩 2022년까지 총 50억원을 '기업은행'에 예약할 계획이며, '공사'가 '은행'에 맡긴 예약금을 기반으로 재원을 마련해 대출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해 줄 방침이

다. 지원대상은 전북도와 '공사', '기업은행'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으로 하며, 기업 신용도 등을 평가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최대 3.9%까지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북도는 GM·조선업 협력업체들을 비롯해 도내 중소기업 중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여러 창업초기 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서훈 전북도 경제산업국장은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 가동중단 등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IBK기업은행의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전북도도 협력사업이 최고의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용위기' 군산지역 청년·실업자 해외취업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 챌린저 양성 과정' 시작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에서 지난 6일부터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챌린저 양성 과정'을 시작했다.

청년과 실업자 등에게 해외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군산에서 면접과 이력서 작성 요령, 직업에 필요한 어학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전액 무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에는 20여명이 참여했다.

공단은 오는 21일까지 70시간을 수료한 교육생에게 수준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일본·베트남·캐나다·호주 등의 최신 취업 정보를 소개할 계획이다.

군산은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

선소 가동 중단과 지난 5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량실직으로 경제가 추락해 정부로부터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교육생의 연령층이 10대 고등학생부터 50대 실직자까지 다양하고 전공 분야도 용접, 관광서비스, 기계 등으로 나뉘어 역량에 따라 맞춤형 과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의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 군산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해외취업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



정읍시, 번개탄 판매업소 4곳 '생명사랑실천가게' 선정

정읍시는 적화탄(번개탄) 판매 업소 5개소를 '생명사랑 실천가게'로 선정했다. <사진>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생명사랑 실천가게 현판을 지난 6일 전달했다.

시는 생명사랑 실천가게 선정을 위해 적화탄 관련 사망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번개탄 판매 형태 개선

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판매법 교육을 실시했다.

또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게이트키퍼(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일산화탄소 가스중독으로 인한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해 생명사랑 실천가게 선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 다문화 이주여성 미디어콘텐츠 제작 교육 호응

고창군이 다문화 이주여성을 위한 미디어콘텐츠 제작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교육은 고창TV와 (주)투어엔미디어 아카데미가 공동주관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교육 중 다문화 이주여성 대상 '1인 미디어 제작교육'은 다문화만의 독특한 미디어콘텐츠를 창작·발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다문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고창

소식을 모국에 소개하는 '글로벌뉴스' 제작과 농산물을 해외에 홍보하는 '글로벌홍소망' 제작과정이 운영된다.

지난 9월 3일부터 진행된 '글로벌뉴스' 제작과정 교육은 완료돼 다른 지역과 해외로 공유돼 고창군을 알리고 있다.

아울러 농산물 홍보와 수출을 위해 오는 2019년에는 '글로벌홍소망' 제작 과정을 기획해 운영할 계획이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5100만원 (일시불 조정가)
- 문의. 010-6834-7400

